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한 공동기숙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ve Housing for Foreign Students Education

공효순*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Hyoee-Soon Kong*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Namseoul University, Cheonan 31020, Korea

[요약]

전 세계가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에 9만명을 넘었으며, 2016년에는 10만 4,26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양적 부족과 기숙사 시설 등 대학의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2016년 전국 평균 36.0%로 저조하며 수도권에 집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문제는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례를 더해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학 공동기숙사와 서울 유학생을 위한 학사 등의 공동기숙사의 개념과 추이를 살펴보고 외국 공동기숙사의 선례인 파리 대학도시와 도쿄 국제교류관을 비교 분석하여 설립과, 운영, 규모, 문화의 특성을 추출하여 확장된 개념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로서의 대안 가능성과 건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mid concentrating on inviting foreign students in the aspect of securing talents as well as advanced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in the world,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exceeded over 90,000 in 2015, increased to 104,262 anticipating further increase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government tried to expand the dormitory supply to the foreign students upon the discretion that short of the basic infrastructure in the universities such as quantitative shortage and facilities of the dormitories limited to lure the foreign students, despite the will of inviting more foreign students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rate of foreign students' staying in the dormitories was low with 36.0% nationwide in 2016, reflecting the difficulties of residence for the foreign students in Metropolitan areas. Hence,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lternative potential as the cooperative housing for the foreign students with the expanded concept and its foundation methods, upon reviewing the concept and trend of the common dormitory such as universities-cooperative housing with the initiativ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ommon dormitories for the Korean students studying in Seoul, and analyzing the university city of Paris and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that are the examples of existing cooperative housing in overseas.

Key Words: Foreign Students, University Cooperative Housing, University City of Paris,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Nurihall of Daejeon City

<http://dx.doi.org/10.14702/JPEE.2017.18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7 November 2017; **Revised** 21 November 2017

Accepted 23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kong1@nsu.ac.kr

I. 서론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시장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생 유치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교육환경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글로벌 고등교육시장이 형성되면서 국내대학의 해외 유학생 유치 등 교육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세계가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발표, 2010년까지 유학생 수를 5만 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는데, 2008년 국내 유학생 수는 이미 63,952명으로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한 바 있다. 그 후, 2015년에는 9만 명, 2016년에는 10만 4,26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5].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의지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양적 부족과 기숙사 시설 등 대학의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표 1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36.0%, 수도권 26.5%, 서울 22.9%로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문제는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15].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내 기숙사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즉, 각종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생활 및 학업관련 각종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내 기숙사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다문화 복합공간으로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유학생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고 유학생 유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대학의 국제화 협

력사업의 하나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유학생들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학 공동기숙사와 서울 유학생을 위학 학사 등의 공동기숙사의 개념과 추이를 살펴보고 외국 공동기숙사의 선례인 파리 대학도시와 도쿄 국제교류관을 비교 분석하여 설립과, 운영, 규모, 문화의 특성을 추출하여 확장된 개념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로서의 대안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A. 대학 공동기숙사의 개념

대학 공동기숙사란 어떤 특정한 대학의 캠퍼스 구역 안에 있는 기숙사가 아니라 인근의 도시 안에 위치하며, 특정 대학교 학생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대학생도 받아들여 융통성 있고 다문화 커뮤니티를 가지는 기숙사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 공동기숙사는 ‘University Cooperative Housing’(Housing은 Dormitory 차원을 벗어난다)으로 영어로 표시되며 Co-op으로 불린다[9]. 근래에 들어서는 기숙사는 대학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히 숙박의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국적과 유형의 학생들이 모여 여가와 학습,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1].

B. 최근 기숙사의 신개념

1) 민자 기숙사

2004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통과되어 2005년 3월부터 직접적인 교육관련 시설이 아닌 기숙사나 문화시설 등 대학교 공간에 민간투자가 허용되었다. 민간투자금의 상환부담을 기숙사비로 충당하는 구조이므로 기숙사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 수요자인 학생들이 주거비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

Table 1. Rate of Foreign Students' Staying of the Dormitories in Korea

년도/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39.0	38.2	37.5	36.2	37.2	37.7	36.0
수도권	28.8	29.4	29.8	27.4	28.8	28.5	26.5
비수도권	49.0	47.6	46.2	47.0	47.7	49.3	48.6
서울	24.0	26.1	27.0	24.0	25.8	25.4	22.9

자료: <http://www.kostal.go.kr>

에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2005년~2011년까지 건국대, 고려대 등 유명사립대학 17곳에서 민자기숙사가 적극 추진되었다[2].

2) 행복(공공/연합)기숙사

공동기숙사의 명칭이 지난 정부의 행복주택과 연계되어 행복기숙사라고 일컬어지나 공공기금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우선배정 및 기숙사비 인하, 토지비용과 건축비등의 사업비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행복(연합)기숙사는 지역 대학들과 지자체, 주무처가 연합하여 대학이 밀집한 지역의 인근대학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국·공유지에 국가 기금으로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 거주하도록 설립된 공동기숙사이다. 홍제동 행복기숙사가 2014년 2학기, 부산 행복기숙사가 2017년 1학기에 운영에 들어갔다[18].

3) 기숙형 대학(R.C; Residential College)

단순히 숙식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환경 외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환경, 인성교육을 제공한다.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의 예를 참고하여 2007년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최초로 도입, 서울여대, 이화여대, 서울대, 서강대에서 최근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6].

C.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의 필요성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에 9만 명을 넘었으며, 2016년에는 10만 4,26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 교내 기숙사가 양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보급함으로써 유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교내 기숙사는 공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구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각종 편의시설 구비와 생활·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교내 기숙사를 증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 교내 기숙사는 그 비용이 학교 밖에서 거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외부에서 거주하는 것에 비해 별다른 장점이 없어 유학생들에게 큰 유인이 없다[5].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국내에 외국인 전용 공동기숙사를 지방에 설립하였지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수도권에 집중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지만 외국 유학생들의 거주문제 및 효율적인 학습 및 사교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 전용 공동기숙사는 수도권에 미미한 실정

다, 따라서 기숙사 본연의 기능을 충족하고 지역적, 시대적 특성을 적용하여 비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화 되는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를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III. 연구방법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전문적인 연구가 미미한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에 대한 기초연구로 국내에서 사례를 더해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학 공동기숙사와 서울 유학생을 위한 학사 등의 공동기숙사의 개념과 추이를 살펴보고 그 중 서울과 지방에 건설된 공동기숙사인 학사와 최초의 외국인 공동기숙사인 대전의 누리관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경우, 캠퍼스 밖의 한 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건설한 파리 대학도시의 공동기숙사와 일본의 도쿄 국제교류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설립배경과 운영방식, 규모와 내부 시설과 거주학생들을 위한 문화 활동과 도시문화와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기본적인 문헌조사를 위해서는 국내·외 서적, 논문, 각종 간행물 및 통계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 사례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사례연구 분석

A. 해외 공동기숙사 사례

1) 파리 대학도시 Cite universitaire de Paris(프랑스)

대학 공동기숙사의 개념을 도시계획 차원까지 발전시킨 사례로 파리 대학도시는 파리의 도심 남쪽 14구역에 위치하며 파리 환상 고속도로에 접하며 대학이 위치한 각 지역으로부터 전철, 버스가 연결된다. 장틸리(Gentilly), 오를레앙(Orleans), 주르당 가(Jourdan Boulevard)에 접한 33 ha의 넓은 대지에 40개관이 모인 대학 국제 공동기숙사이다(약칭 CIUP)[9] (표 2).

2) 도쿄 국제교류관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일본) (표 3)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육·연구, 국제교류, 산·관·학 연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세계적인 지적 네트워크 및 정보 거점을 형성한다는 목표 하에 도쿄 국제교류관(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을 설립하였다. 도쿄 국제교류관은 유학생 기숙사 4개동 796실 및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플라자 헤이세이로 불리는 480석의 컨벤션 시

표 2. 파리 대학도시의 40개관의 개요

Table 2. Overview of the 40 Housing, University City of Paris

구분	내용
규모	•50실 이하 6개관, 100실 이하 9개관, 200실 이하 10개관, 300실 이하 7개관, 5개관은 숙실이 없음.
실 조합	•1인실이 2인실보다 비율이 높음, 아파트, 스튜디오는 프랑스 지역관과 캄보디아관처럼 교수, 예술가를 위한 수용목적으로 상당 비율 차지함.
실 규모	•9 m ² ~11 m ² - 18 m ² (18 m ² 최다 빈도), 스튜디오 16 m ² ~24 m ² , 최대 35 m ² 1인실, 2인실의 면적 차이는 크지 않음.
실 구성	•샤워실, 변기, 세면대가 구비된 화장실, 책상, 책장, 침대, 의자, 테이블, 선반, 옷장, 램프, 압채어, 스톨. 스튜디오급 이상에 설치되었던 키친 셋업을 근래에 추가하여 프라이버시와 편리성 높임.
공동시설	•각층: 공용 주방, 샤워실, 화장실을 구비하여 개실의 공간과 기능을 보완, 거주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층별 거실이 주어지는 추세. •지하실: 세탁기, 건조기, 아이언 설치, 컴퓨터실, 복사실, 사진 작업실 등. •1층: 대규모 거실, 독서실, 전시실, 음악실, TV실, 다목적실, 예술가 공방 등. •중앙 레스토랑, 중·소규모의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테라스 바비큐, 페스티벌, 전시관, 도서관, 극장, 은행, 체육실, 실내탁구장 수영장, 스포츠 홀, 중앙 정원 등.
문화	•콘서트와 전시, 회의, 토론 등은 공통적이며, 일본, 아프리카, 스웨덴, 노르웨이의 전통축제, 미국과 아프리카의 재즈 프로그램 등 각 각 자국의 문화 예술을 주제로 많은 행사 개최되며 각 관의 계속되는 문화행사는 대학도시의 범주를 넘어 파리 시 전체가 주목하는 주요한 문화 이벤트로 자리잡고 있다.
수용 운영방식	•외국관과 프랑스 자체관은 자국민 50%, 외국인 50% 공통적인 내부 지침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한다. 학생 이외 연구원, 예술가, 교수 등 수용자격은 다양하며, 장·단기 혼용하여 학기에 따른 경제성을 살리고 있다.

자료: <http://www.ciup.fr>

표 3. 도쿄 국제교류관의 개요

Table 3. Overview of the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구분	내용
설립주체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유학생과
개관	•2001년 7월
부지	•12,000평(국유지)
설립계획	•도시단위
주변시설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공동연구공간, 산관학 제휴센터 •미라이칸- 전시, 교류, 연구시설
용도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기숙사- 개인용 숙소, 부부, 가족용 숙소 •플라자 헤이세이- 강연장, 미디어 홀, 자습실, 연습실, 체육실 등
목적	•고품질 생활공간 제공, 국제적인 교육·연구 교류공간 제공 •최첨단 과학기술 정보 제공, 연구 추진·교류 정보 제공 •국제적인 산·관학 제휴에 의한 연구교류 거점 제공

자료: <http://www.tiec.jasso.go.jp>

설과, 100석의 미디어 홀을 구비하였다. 운영은 국립 행정 법인이자 도쿄의 14개 국제교류회관을 운영하는 일본 내 유학생 지원기관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Japan Students Services Organization)가 담당하고 있다[13].

B. 국내 공동기숙사 사례

1) 국내 학사, 학숙

현재까지 재경학사는 총 2,278명 수용하는 ① 강원학사 ② 경기도 장학관 ③ 충북학사 ④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⑤ 남도학사 ⑥ 제주학사 ⑦ 기타 - 전주장학숙, 제천학사, 연천

군장학관, 포천장학관이 있으며, 지방학사는 총 1,808명을 수용하는 ① 경북학숙 ② 전남학숙 ③ 전주 장학숙 ④ 충청학사 ⑤ 기타 -진안장학숙, 춘천학사, 경남학숙, 충북학사가 있다. 재경학사는 1989년부터 1994년에 개관, 제주학사와 지방 학사 4개관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개관, 연천과 포천 장학관은 2014년 개관하였다.

규모는 충북학사 1,278평, 경기 2,247평, 제주 4,691평, 남도 9,855평으로 지하 3-4층, 지상 11층으로 대규모화 되고 있다. 수용규모는 29명부터 516명의 다양한 범위이다. 학사 대부분이 2인 1실로 전복의 청운관은 고시준비 목적의 1인 1실이다. 각 호실은 옷장, 책장, 침대, 의자를 구비하였으며 인터넷은 개실 혹은 공용공간에서 가능하다. 전화, 화장실, 샤워실은 최근 건설된 학사에는 개실 내에 포함되어 있다. 공동 시설로는 휴게실, 세탁실, 도서실, 공용 PC실, 세탁실,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2) 대전 외국인 전용기숙사 누리관(표 4)

대전지역의 중국과 동남아 유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관학 합동건립을 발의 하여 대전시와 대학 간에 엑스포 과학 공원 내 국제전시구역 기숙사 건립사업의 비용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 2005년 12월 기공하여 2007년 9월에 개관하였다.

누리관은 건립 당시 450명 규모의 중규모로 건립되던 후 점진적인 추가 건립을 계획했으며, 누리관을 거점으로 국제화 클러스터(International Cluster)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표 4. 대전시 외국인 전용 기숙사 누리관

Table 4. Overview of the Nurihall of Foreigner's Dormitory, Daejeon City

구분	내용
설립주체	대전시, 대전 소재 8개 대학(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KAIST, 한남대, 한밭대)
개관	2007년 9월
규모	연면적 7,043 m ² , 지하 1층, 지상 10층, 224실 450명 수용, 2인 1실
시설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매점, 독서실, 종교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설립계획	대전시 보유 유휴지, 엑스포과학 공원 내에 설립
주변시설	엑스포 공원의 유스호스텔, DCC 대전컨벤션센터, 국립중앙과학관, 대전무역전시관
용도	대전 소재 8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주
목적	기존 엑스포공원의 유스호스텔, 컨벤션센터, 게스트 하우스와 연계 외국인체험마을, 외국어아카데미와 국제화 클러스터 조성

자료: www.nurihall.or.kr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누리관은 단순 숙박기능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와 참여 대학 역시 추가 건립 계획 역시 없는 상황이다[13].

V.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에 관한 논의

기숙사 수요(국내, 외국유학생)의 변화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수요자의 선호 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동기숙사의 건립의 구성 방향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외까지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문제의 대안 가능성을 위해서 외국의 공동기숙사의 선례인 파리

대학도시와 도쿄 국제교류관과 국내의 다양한 공동기숙사와 국내 최초의 외국인 공동기숙사인 대전 누리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외국인 공동기숙사의 건립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파리 대학도시의 대학공동기숙사를 도시계획으로 발전시킨 모범적 사례로 국내 공동기숙사와 비교해 보면 규모 및 실 규모, 조합, 공동시설과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 6을 통하여 도쿄국제교류관은 고품질의 생활공간과 국제적인 교육 연구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목표로 유학생, 연구자 기숙사와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였으며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와 첨단 과학박물관인 미라이칸, 해사박물관 등 주변건물과 연계하여 국제화 교육 학술단지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기숙사 누리관과 비교해 보면 규모와 시설, 운영방식 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 5와 표 6의 비교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맞추어 기숙사의 규모를 초기 건립 시 동 단위 계획에서 점진적으로 도시발전 계획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을 혼합 수용하여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문화 중심 커뮤니티를 지향해야 하며 국내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이용자 유형에 따라 동 단위 혹은 층별 단위로 수용자들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구성 계획과 수용자의 대상도 넓혀 경영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공, 공익재단의 재정과 관리가 중심이 되어 복지차원의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로 공동기숙사의 촉진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공동기숙사가 수도권 내에 신축 된다면 주민들 및 주변 임대업자들이 집값 하락,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 환경 파괴 등의 부정적인 이유로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들과의 갈등

표 5. 국내 공동기숙사와 파리 대학도시 비교

Table 5. Comparison on Cooperative Housing in Korea between Housing of University City of Paris

	국내 공동기숙사	파리 대학도시
개관	학사-1990년대, 공동-2007년부터	1925년부터, 한국관-2018년
재정	학사-장학재단, 공동-국공유지,공공재정	초기-개인기증, 이후-공공재정, 대지-프랑스 무상기증
규모	평균 200-300인	평균 150실
실 규모	5.95~10.9 m ² /1인당 면적	18 m ² /1인당 면적
실 조합	2인 1실	1인 1실, 스튜디오, 아파트
공동시설	세탁실, 컴퓨터실, 독서실, 주방, 식당, 휴게실, 구내매점, 체육실, 실내 탁구장 등	거실, 공용주방, 독서실, 전시실, 음악실, TV실, 다목적실, 도서관, 은행, 바, 극장, 예술가 공방, 레스토랑, 극장, 수영장, 게임룸, 스포츠 홀, 중앙정원 등
문화	자체축제, 체육행사, 동아리활동, 교양강좌	콘서트, 전시, 회의 토론, 대규모의 문화행사, 파리지 전체 문화 이벤트
운영방식	대학생에 국한	각관 내 다국적 학생 혼합수용, 학생 이외 연구원, 예술가, 교수, 방학 단기 체류자

자료: 연구자 조사에 의한 재정리

표 6. 대전 외국인 전용 공동기숙사 누리관와 도쿄 국제교류관 비교

Table 6. Comparison on Nurihall of Foreigner's Dormitory, Daejeon City between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대전 누리관		도쿄 국제교류관
개 관	2007년 9월	2001년 7월
설립주체	대전 소재 8개 대학	일본 문부과학성
부 지	대전시유지 - 1,360평	국유지 - 12,000평
건립계획	동단위	도시단위
주변시설	엑스포 과학공원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미라이칸, 해사박물관
건립목적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외국인 유치,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고품질 생활공간 제공, 국제적인 교육·연구 교류공간제공, 최첨단 과학기술 정보 제공, 국제적인 산·관학 제휴에 의한 연구교류 거점 제공
공동시설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매점,독서실, 종교실, 공동취사실	레스토랑, 강연장, 미디어 홀, 자습실, 연수실, 전시실, 컨벤션, 도서관, 체육실, 이벤트홀 등
운영방식	대전시 소재 8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국한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기숙사, 개인용 숙소, 부부·가족용 숙소

자료: 연구자 조사에 의한 재정리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 기대로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영향 등을 적극 설득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들 간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보완과 지원책을 마련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즉 주변 시설 및 공용시설을 연계하여 기숙사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7].

다음은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의 대안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다양한 공동기숙사와 파리 대학도시와 국내 최초의 외국인 공동기숙사인 대전 누리관과 도쿄의 국제교류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의 건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 도시계획 단위의 건립 계획

초기 건립 시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계획 단위로 발전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 문화, 상업,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단계적인 도시단위로 확장하여 글로벌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기존의 캠퍼스 기숙사는 현재의 확장은 마감하고 국내·외의 공공의 재정을 확보하여 캠퍼스 외 공동기숙사로 전환하고, 초기 건립 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발제한 구역이나 도심 유휴지,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 택지 개발지를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기숙사 특정 용도로 지역화하면 파리의 선례에 따른 대학도시 개념의 설립시행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B. 글로벌 커뮤니티 조성

자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을 혼합 수용하여 다문화적인 커

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국적의 대학생의 교류를 통한 세계화 된 문화 중심지를 지향하는 개념을 창출한다. 즉 공연장, 도서관, 전시관 등의 흡인력 있는 글로벌, 로컬 문화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시민들과의 교류를 넓히며, 식당과 상점 등의 상업시설을 통하여 주거 이외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여 새로운 대학 기숙사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C. 수용자 운영방식

수용자를 학생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학자, 예술가, 교수, 문화인, 기혼학생 부부까지 대상을 넓히고, 장·단기 체류를 혼합하여 학기에 따른 경제성을 최대한 살려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D. 건축계획

이용자 유형에 따라 동 단위 혹은 층별 단위로 구획하며 체류기간, 인원수, 생활방식, 자녀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단위공간으로 계획한다. 소, 중, 대규모의 다양한 건물로 자유롭게 구성하며, 미래지향적으로 1인 1실을 확대하되, 2인 1실, 스튜디오, 아파트 등 다양한 규모의 객실을 조합하여 융통성을 높인다.

E. 재정계획

파리의 대학도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 공익재단의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리나라

라를 포함한 외국 유학생이 많은 국가, 기업 또는 다수의 일반인의 자발적인 건설비 부담을 바탕으로 개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기숙사비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국가 별로 특유한 건축 작품과, 문화행사,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 유발과 흡인 효과를 촉진시킨다면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출 것이다.

VI. 결론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인해 그들의 최초 목표인 한국의 발전된 교육을 받고자 했던 것과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현재까지 전문적인 연구가 미미한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에 대한 기초연구로 국내에서도 사례를 더해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학 공동기숙사와 서울 유학생을 위학 학사 등의 공동기숙사의 개념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 공동기숙사의 선례인 파리 대학도시와 도쿄 국제교류관을 비교 분석하여 설립과, 운영, 규모, 문화의 특성을 추출하여 확장된 개념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로서의 대안 가능성과 건립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의 건립방안은 국제적 홍보 및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단순 숙박기능 이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국내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학도시를 설립하여 세계화 된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는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의 대안 가능성과 건립방안에 실현성 있는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의 향후 과제는 구체적인 대학도시 계획과 정책, 제도적인 지원책과 교육방안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분야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대학에서의 학업에 필요한 학문 목적으로 재개편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문화 이해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재정비하여 타 문화 개방성을 진단하고 대학차원의 타 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과 타 문화 간 협동학습을 활용한 강의설계가 요구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참고문헌

- [1] D. J. Kang, "Plan on the integration of education and residence," *Reference of 1st Forum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Public) School*, 2014.
- [2] S. B. Kang, "A study on planning of joint dormitory building,"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 Urban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2015.
- [3] H. S. Kong, "A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scheme for residence colleg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vol. 20, no. 4, pp. 67-84, December 2016.
- [4] C. K. Kim, "The study on the planning of the university dormitory based on residential satisfaction,"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Kyungsang University, Jinju, 2011.
- [5] H. J. Kim, "A study on validity of the university cooperative dormitory for foreigners", Research Project of Daegu, Kyungbuk Development Institute, 2009.
- [6] H. J. Song, J. J. Jun, and H. K. Lee, "A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scheme for residence college," *Reference of 1st Forum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Public) School*, 2014.
- [7] J. H. Yang and N. H. Kang, "A study on conflict between newly-built college dormitory and neighbors, focusing on Hoegi-dong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eal Estate Policy Search*, vol. 16, no. 1, p. 54, 2015.
- [8] J. H. Yoon and C. H. Kang, "A study on the planning of dormitory designated for foreigners,"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 no. 64, pp. 109-110, 2016.
- [9] J. K. Le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of university cooperative housing," *Journal of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of Korea*, vol. 6, no. 1, pp. 135-147, 2008.
- [10] J. K. Le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of international university cooperative housing," *Journal of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of Korea*, vol. 12, no. 4, pp. 275-287, 2014.
- [11] H. S. Lee and H. O. Hong,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dormitory housing for foreign students," *Journal of Housing Association of Korea*, vol. 25, no. 1, pp. 369-374, 2013.
- [12] Ministry of Education [Internet]. Available: <http://www.>

moe.go.kr/.

[13]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Internet]. Available: <http://tiiec.jasso.go.jp/>.

[14] Nurihall of Foreigner's Dormitory, Daejeon City [Internet]. Available: <http://murihall.or.kr/>.

[1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ternet]. Available: <http://www.Kostal.go.kr/>.

[16] Housing of University City of Paris [Internet]. Available: <http://www.ciup.fr/>.

[17] Foreign Ministry of France [Internet]. Available: <http://www.diplomatie.gouv.fr/>.

[18]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Public) School [Internet]. Available: <http://www.kfpp.or.kr/>.



공 호 순 (Hye-soon Kong)

2005년 8월 : 경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

1985년 ~ 2006년 : 서울힐튼호텔, 비즈니스센터 실장

2006년 ~ 현재 :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중저가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기숙형대학(RC)